

새로운 IT 산업의 비전과 정책추진방향

전상헌
지식경제부

요 약

IT 산업은 과거에도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고 현재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IT 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조산업과 융합을 통해 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의 역할,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등 IT 산업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소명은 점차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IT 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역할과 의미에 부합하는 IT 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1990년대 후반들어 정보 혁명이 본격화되자 세계 각국은 지식정보시대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의 유력한 성장 동력인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IT 산업에 대한 기대는 'IT 버블효과'가 붕괴되면서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지식정보시대의 주요 핵심요소로 '지식'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나 이 한 가지 핵심 요소만으로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IT 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적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IT 산업의 육성 없이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존 산업과의 원활한 융·복합만이 21C 산업강국을 실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IT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IT 일등 국가로 도약하였다. 또한 IT 산업은 1990년대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1위권의 경제 국가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고령화 등 경제·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IT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IT 산업의 수요와 공급, 협력 방식 측면에서 그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간의 IT 산업의 성장 경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IT 산업의 역할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을 분석하여 I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I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이제까지 IT 산업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무역수지개선 등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IT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IT 시장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고, 인텔, 델, 노키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

〈표 1〉 거시경제측면에서 IT산업의 기여

경제성장	• '00~'08년 IT 산업 실질 부가가치 평균 11.8% 성장
	• '00~'08년 평균 GDP 성장률 4.2%의 2.7배
고용창출	• '00~'08년 IT 산업 고용 3.9% 증가(전산업 1.2%)
	• '00~'08년 전산업 고용증가의 16.4%를 기여
수출 및 무역수지	• 전체 수출 내 IT 수출 비중 31.1% ('08년)
	• '00~'08년 IT 산업 무역수지 누적 3,595억 달러 흑자
물가하락	• '00~'08년 IT 소비자물가 증가율 -4.18% (전체 3.26%)
	• '00~'08년 IT 생산자물가 증가율 -6.71% (전체 2.53%)

자료 : IT KOREA 미래 전략, 지식경제부(2009.09)

에서도 우리나라 IT 무역수지는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57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흑자에 절대적으로 기여⁰¹⁾하고 있고,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1등 공신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이자 활력소로서 IT산업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도 IT를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브로드밴드, 헬스 IT, 스마트그리드 등 IT 분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9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일본도 경제 위기에 대응한 IT 新전략 3개년 긴급플랜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IT 분야에 3조 엔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⁰²⁾. 또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경 문제로 인한 녹색성장이 국가 아젠다로 대두된 가운데 미국은 IT를 활용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IT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고령화,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등 기반산업으로서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가. IT 산업의 역할 변화

최근 IT산업은 '융합'이라는 화두 아래 타 산업의 기반 산업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IT 기술 접목, 건설 분야에서 IT를 활용한 프로세스 개선 등

이 IT 활용의 예로 꼽을 수 있다. 자동차의 부품공급, 수요예측, 공급 망 구축, 물류 체계 통합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RFID를 이용, SCM을 구축하는 등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이미 IT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건설 분야에서는 3D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관리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활용, 생산성 및 공기 향상, 원가절감 등에서 IT 기술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IT 산업은 IT 하나의 산업 요소를 뛰어넘어 소산업의 인프라 또는 생산요소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환경, 에너지, 복지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요소로 IT가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IT 산업의 경쟁 환경 및 수익 구조 변화

글로벌 IT 산업은 시장 성숙 등으로 성장률이 2002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IT 시장의 성장률은 지난 5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T 산업의 경쟁 구도는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과 국가가 연계한 새로운 경쟁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환기를 맞은 2000년대 초기부터 IT 산업의 수익구조는 〈표 2〉와 같이 HW에서 SW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HW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부가가치의 원천인 SW에서는 아직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년 한국에서 7,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내 SW기업의 연간 수출액은 2,133억에 불과한 실정이다⁰³⁾. 향후 글로벌 IT 시장은 SW 및 IT서비스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은 SW 및 IT 서비스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역시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성장률

구분 (단위:%)	'98 ~ '00	'01 ~ '05	'06 ~ '10
HW	9.12	-0.32	3.72
SW	13.07	4.67	6.63
SW 및 IT서비스/ HW시장 규모 비율	0.88배	1.10배	1.22배

자료 : Gartner dataquest Market Databook 1996~2006

01_ '08년 기준 IT 수출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1,312억 달러

02_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국가정보화백서, 2009.8

03_ 전자신문, "디지털 뉴딜이 희망이다"

2. 국내 IT산업 주요정책 추진경과

국내에서는 IT 산업이 유망 산업임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IT 정책을 전개하였고, 産學研官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IT 강국을 실현하였다.

<표 3> 주요 IT 정책 및 법적 현황

구분	주요정책 및 법적	이정표
'60년~'80년대	전자공업진흥계획('68) 전자공업진흥법 제정('69)	전자 수출 50만\$('62)→10억\$('76) 국내 컬러TV 첫 개발('74)
'80년~'90년대 중반	전자공업육성계획('81)	64K D램 개발('83), 4M D램 개발('88) 수출 100억불 달성('87) 유선전화 1천만 회선('88)
'90년대 중반~'00년대 초	정보통신부 출범('94) 초고속정보통신망 종합계획('95) 정보화촉진법 제정('95)	세계최초 CDMA 상용화('96) 이동전화가입자 1천만명('98) e-biz, IT벤처 활성화 및 닷컴 붐('99-'0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확산
'02년~현재	IT839 정책('04) 지식경제부 출범('08)	전자산업 수출 1천억\$('05, 단일업종 최초) 방송·통신 융합, 웹2.0 등 IT진화 발전 분야별 정보화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

자료 : IT KOREA 미래 전략, 지식경제부(2009.09)

시대별 주요 IT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1960년대 전자공업진흥계획을 시작으로 1980년대 전자공업육성계획, 1990년대 초고속정보통신망 종합계획, 2004년 IT839⁹⁾ 정책 등을 통해 IT 산업을 육성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을 통한 정보화인프라 집중투자로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인터넷·이동전화 및 WiBro, DMB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한 IT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표 4> IT를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 현황

구분	문민정부 (1993~1997)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국가정보화 기반 마련	① 전산망 보급 및 주요정보 DB구축 ②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		
정보화 고도화	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② IT산업의 주력 성장산업 부상		
분야별 정보화 촉진	① 물류, 항만 등 국가전반 정보화 촉진 ② IT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자료 : IT KOREA 미래 전략, 지식경제부(2009.09)

04_ IT839('04~'06), u-IT839('06~'07) : 서비스, 인프라, 기기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IT 산업 정책으로 첨단 IT 기술 확보 및 세계화 추진

이러한 IT 정책 및 R&D 투자를 통하여 우리 IT 산업은 디스플레이 시장 1위, 휴대폰 2위, 반도체 2위 등 제조 및 생산 기술력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표 5> 국내 IT 산업의 취약 분야

구분	내용
대기업 소수품목 중심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3개 품목 수출이 전체 IT 수출의 70.1% 차지 - 65.0%('06)→68.2%('07)→70.1%('08) IT 산업의 중소기업 사업체수 98.6% 차지 - 그러나 생산 29.1%, 수출 13.2%를 차지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의 국산화율은 향상되었으나, 주요 핵심 부품 소재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음 - IT 제품 수입 중 부품 소재가 70%차지 - 핵심 소재의 국산조달비율은 평균 25% 핵심 기술 미확보로 해외 업체에 로열티 지급 - '95-'96년 동안 CDMA 기술료로 퀄컴에게 3조 4,069억 원 지불

그러나 IT 산업 성장이 대기업 소수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품목의 경기변동에 IT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과 부품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을 유발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IT산업 수익원천으로 부상할 SW 경쟁력이 취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IT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내 IT산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국내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새로운 IT 산업 정책

가. 외국의 IT산업 정책

주요 선진국들은 IT 산업 자체 고도화 정책 보다는 IT를 통한 국가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인재양성, R&D 투자확대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활용 촉진 등을 국가 혁신전략으로 제시하는 Innovate America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되는 IT분야의 연구개발을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한된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범정부적 IT R&D 프로그램인 NITRD⁵⁾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운영 중이다.

<표 6> IT KOREA 미래 전략 요약

5대 분야	전략 목표	전략
■ IT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융합 기술· 시장 선도 및 2013년 국내 생산 1조원 이상 융합 신사업 10개 창출 2020년까지 18대 신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산업과 IT 융합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스마트 SOC 구축 그린 IT 확산
■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글로벌 100대 IT서비스 기업 6개, 패키지 SW기업 2개 맞춤형 해외진출을 통한 2013년 SW 수출 75억불 달성 2013년 SW 고급인력 및 글로벌 리더 6,000명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SW 융합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SW R&D와 품질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리더 양성 국내 시장 구조혁신 인프라 확충
■ 주력 IT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3대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대 장비 산업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점유율 2배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반도체 선도적 위상 강화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시장 선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선점 5대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IT 중핵 기업 육성
■ 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1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이동통신(WiBro/4G) 활성화 차세대 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차별화 차세대 방송(디지털/3D) 산업 선도 방송콘텐츠 진흥
■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현재보다 10배 빠른 초 광대역 융합망 구축 선진국 수준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및 투자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고도화(UBcN 구축) Future Internet 추진체계 정립 R&D 강화 및 전략적 국제 공동 연구 정보보호 대응주체 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및 미래위협 대비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e-Japan 전략', 'e-Japan 전략 II' 중심으로 IT 기반의 정비 및 활용을 추진 시켜왔으며, 이후 IT 전략본부는 2006년부터 전략의 방향을 기존 정보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서 IT를 통한 사회 구조개혁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 기반 정비, 차세대 인재육성과 IT 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중점인 'IT신개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설정된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정보통신기술을 가치 창출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로 판단하고, 유럽을 ICT의 세계 리더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 'A Strategy for ICT R&D and Innovation in Europe'를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EU가 정보통신기술을 유럽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출 수단으로 보고, 공공·민간 부분의 정보통신 R&D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신 시장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은 IT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05_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부처별로 추진되는 IT 분야의 연구 개발 조정,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및 제한된 재원을 집중화하기 위한 미국의 범정부적 IT R&D 프로그램

06_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IT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06년 책정한 일본의 IT 전략으로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나. 국내 IT 산업 정책

정부는 지난 9월 제조, 서비스, SW의 동반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대/중소·벤처 기업 동반 성장을 통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한 'IT KOREA 미래전략'을 발표하였다. IT KOREA 미래전략은 융합, 소프트웨어, 주력 IT 기기, 방송통신, 인터넷 분야의 동반 성장 체제를 구축하여 IT 산업의 융합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IT KOREA 미래전략 비전

1) IT 융합 정책

우리 경제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에 걸친 융합을 통한 구조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IT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T 자체의 기술 혁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IT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능형 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7> IT 융합 분야 세부 전략

주력산업과 IT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촉진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 융합거점 마련 및 전문기업 육성 □ 융합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기반조성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기술의 전략적 개발 □ 선 순환적 성장 환경 조성 □ 산업체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 SOC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융합인프라 구축 □ 디지털 리버 등 삶의 질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도서관 등 지식 인프라 구축 □ World Best 그린 IT 제품개발 및 수출 전략화
그린 IT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의 그린화 실현 □ Green IT 인프라 구축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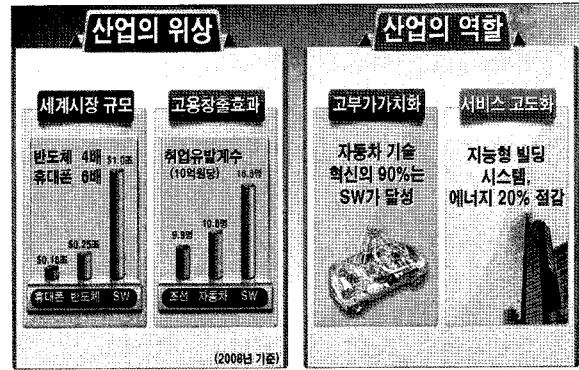
정부는 IT 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IT 융합 기술과 융합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① 주력 산업과의 IT융합, ②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 ③ 스마트 SOC 구축, ④ 그린 IT 확산 등을 주요 전략분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 생산 1조원 이상의 융합 신사업을 10개 창출하고, 2020년까지 18대 신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SW 산업 정책

SW 산업은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장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은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SW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낙후된 시장구조, 부실한 R&D 투자, 인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고,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SW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SW산업을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SW 품질 경쟁력 강화, SW 경쟁구조 혁신 정책 등



(그림 2) SW산업의 중요성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추진전략은 <표 8>과 같다.

<표 8> SW 산업 분야 세부 전략

내수의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을 위한 대중소 협의체 구성
	□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SW 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	□ 해외거점 활용 및 국제협력강화?
	□ 주력 산업별 임베디드SW 본격 육성
SW R&D와 품질 경쟁력 강화	□ SW+서비스융합 모델 발굴 및 활성화
	□ SW 융합형 대형 국경과제 발굴·지원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SW리더 양성	□ 미래시장 주도형 전략SW R&D 지원
	□ SW 품질과 생산성 혁신 선도
국내시장 구조혁신 인프라 확충	□ 차세대 SW리더 양성
	□ 기업수요형 SW전문인력 양성
	□ 중소 SW포럼 구성과 SW 선진화 펀드 조성
	□ 대중소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SW 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타 인프라 확충

3) 주력 IT 및 장비산업 정책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3대 스타 IT 산업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해 왔다.

스타 IT 산업의 분야별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이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이 세계시장 점유율⁷⁾ 50%를 상회하며 시장 주도권을

07_ '1Q09기준 국내 업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DRAM 56.2%, NAND 플래시 53.7%
08_ '08년 기준 국내 패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TFT-LCD 46%, PDP 52%

강화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최고의 패널 양산 기술력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 1위⁹⁾를 유지하고 있고, 휴대폰은 2009년 2분기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LG 전자를 합쳐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⁹⁾하였다.

이렇듯 3대 품목의 완제품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경쟁 국가와 후발 국가의 추격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스타 IT 산업을 뒷받침 하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등은 완제품과 부품소재 산업보다 정책순위가 밀려 아직까지도 기술력과 국산화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방송 및 네트워크 등 5대 장비 산업은 핵심 원천기술의 부재, 글로벌 수준의 장비기업 부족, 정부와 민간 차원의 중장기 발전 지원과 인프라 결여 등으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정부는 스타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5대 장비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 기술 표준 선점, 장비 기업과 장비산업 성장 기반 조성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9〉 IT 기기 산업 분야 세부 전략

메모리반도체 선도적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 선점 □ 정부-업체간 공동 R&D 추진 □ 업체의 지배 구조 개선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시장 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및 표준 선점 □ 기업간 상생협력 확대 □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제협력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 UI, 디자인 등 소프트 파워 역량 강화 □ 핵심·차세대 기술 및 표준의 선제적 확보 □ 중소·부품 기업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
5대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IT 중핵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글로벌 Top 수준의 장비기업 육성 □ 선순환적 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

4) 방송통신 및 인터넷

우리나라가 추진한 WiBro, IPTV 등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서비스이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들이 인터넷 보급을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강국이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IPTV, 차세대 방송(디지털/3D), 방송콘텐츠 부문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는 국내 활성화를 위해 전국 망 구축, 무선인터넷 활성화 환경 조성, 4G 표준화 주도를 통한 해외진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IPTV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방송은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콘텐츠 부문은 경쟁 촉진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부문은 네트워크 고도화, 미래 인터넷에 대한 R&D 강화,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인터넷 시장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III. 결 론

우리나라 IT 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주력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특히 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에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IT산업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IT산업이 IT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융합과 녹색성장 시대에는 IT 자체의 고도화 뿐만 아니라 IT와 타산업의 융합, 녹색성장의 인프라로서의 IT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정부가 제시한 「IT KOREA 미래전략(’09.9.2)」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IT 산업의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IT KOREA 미래전략」은 IT와 주력산업(제조업)과의 융합, 반도체 등 스타 IT산업의 경쟁 우위 지속, 5대 장비산업 육성, SW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과 인터넷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IT산업의 성장 한계론을 불식시키고, IT산업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09_ 세계시장점유율(09.2Q) : 삼성전자(19.2%), LG전자(10.9%)

정부는 과거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IT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IT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문형돈외, “2009년 IT 산업의 위기와 기회”, IT SPOT Issue,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02
- [5] 유수근, “IT 기반 융합산업 정책 방향”, 한국통신학회, 2009.1
- [6]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국가정보화백서, 2009.8
- [7] 지식경제부, IT KOREA 미래전략, 2009.9
- [8] IT전략본부, i-Japan 전략 2015, 2009.7
- [9] 전자신문, “디지털 뉴딜이 희망이다”

참 문 료

- [1] 전유덕, “일본 IT 정책 로드맵 분석”, 해외 IT R&D Policy 동향분석, pp. 23-5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1
- [2] 이성덕, “미국 IT R&D 정책 동향”, 해외 IT R&D Policy 동향분석, pp. 43-5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3
- [3] 이은경, “EU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 해외 IT R&D Policy 동향분석, pp. 139-14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9.3

약 력



198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6년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2009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0년 행정고시 제24회
 2007년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장
 2008년 지식경제부 감사관
 현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 상 연

